

<2012년 1월 1일 주일말씀 : 신년에배>

주와 관리, 전도

본 문 누가복음 8장 22-25절

할렐루야! 201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진리와 은혜의 평강을 빕니다. 새해 첫 주일말씀을 통해 성령님의 뜨거운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2012년은 ‘주와 같이 관리와 전도의 해’로 정했습니다.

오늘은 관리에 대해서, 생명 전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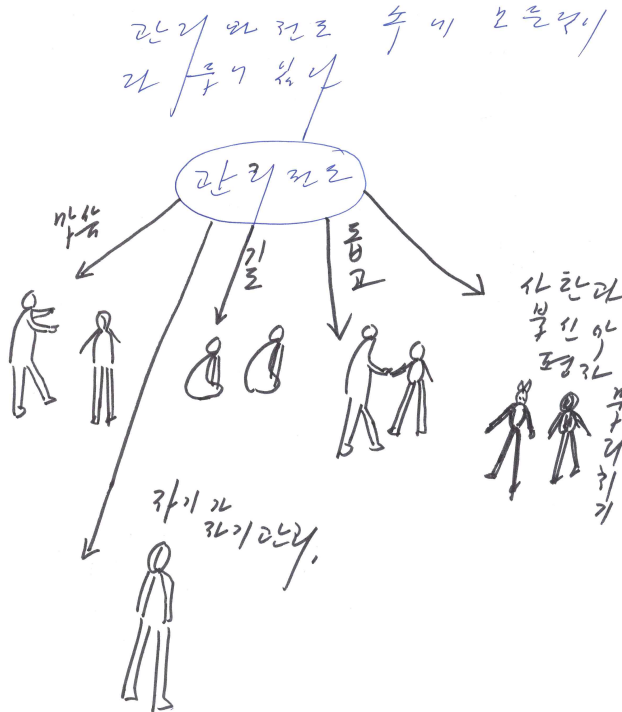
(*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영상1>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풍랑이 일어나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타고 있던 배를 덮치려 했습니다. 제자들은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하며 주무시는 주님을 깨웠습니다. 이때 주님은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셨습니다. 이에 바람과 물결이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주님께 살려 달라고 매달리니 바람과 물결을 꾸짖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관리해 주셨습니다. 이 시대의 바람과 물결이란, 사탄과 악한 자들이 행하는 일이며 우리가 겪는 환난을 말합니다. 주 앞에 모든 문제를 놓고 간구하며, 또 우리가 행할 것을 행하면 주님의 이름으로 환난을 이기고 문제가 해결됩니다.

<영상1> (설교 내용에 맞춰 해당 영상 제작 / 설교 내용 자막 처리)

풍랑이 일어나 예수님과 제자들이 타고 있던 배를 덮치려 하는 모습
이때 제자들이 주님을 깨웠고, 주님은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신다.

(* 이제 ‘관리와 전도’에 대한 말씀을 구체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화면을 보겠습니다.) <영상2> ‘관리와 전도’ 속에 공적도 들어 있고, 우리가 할 일도 들어 있고, 말씀도 들어 있고, 기도도 들어 있고, 도움도 들어 있고, 사탄과 불신자들과 악령자들을 물리치는 것도 들어 있습니다.



<영상2> 설교 내용 모두 자막 처리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은 ‘관리’가 안 되면 존재를 못 합니다. 인간이 관리하지 못하는 것은 전능하신 성삼위께서 관리하시어 만물들이나 사람들이 존재하게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할 관리는 자신이 해야 자기가 존재합니다.

흔히 처음에 희망에 차서 애쓰고 수고하여 얻은 것도 가다 보면 그 가치를 잊어버려 관리하지 않게 되고, 또 관심과 신경을 안 쓰니 점점 가치가 상실되고 별 보잘것없이 없게 됩니다. 집에서 기르는 화분의 꽃나무도 관리하지 않으면 꽃이 제대로 피지 않고 나무가 바로 죽습니다. 땅에 있는 꽃들도 관리하지 않으면 바로 상태가 변하고 죽게 됩니다.

모든 만물도, 자기 자신도 관리해 주는 대로 그것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되고, 이상을 누리게 되고, 공적을 쌓으며 살게 됩니다.

계속해서 주님께서 왜 2012년을 관리와 전도의 해로 정해 주셨는지 모두 깨닫도록 말씀해 주겠습니다.

저마다 자기가 잘 존재하도록 자기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기도로, 말씀으로, 온전한 생각으로, 철저한 행실로, 부지런함으로, 사랑함으로 관리해 줘야 됩니다. 또한 육도 건강하도록 잘 먹이고 입히고 기분 좋게 관리해 줘야 됩니다. 자기 관리를 너무 안 해도 자기가 자기에게 실망하게 됩니다.

(* 화면을 보겠습니다.) <영상3> 육적으로 살지 말라고 해서 거지가 되어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육을 굶기면서, 금식하면서, 잠을 안 재우면서, 육적 관리를 안 하면서 육이 힘이 없어 맥을 못 쓰게 하여 영적으로 힘내서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으로부터 고립시켜서 자기를 가두는 관리를 하지 말고, 활동하면서 세상에 빠지지 않는 관리를 해야 합니다.

<영상3> 설교 내용에 맞춰 해당 영상 제작 / 설교 내용 자막 처리

주님의 것이 되어 주님의 생각으로 살면 육신을 굶길 필요가 없고, 잠을 안 재울 필요가 없고, 육신을 확대하고 혹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육이 자기 생각과 함께 하나님의 법을 범하여 말을 안 듣고 불순종하면서 식욕만 강하여 육성으로 세상에 치우쳐 살기만 하면, 사랑하는 주님께 가지 못하여 구원을 못 받고 자기 영도, 혼도, 마음도 영원한 지옥으로 가서 고생하니, 전능자의 말씀을 벗어나서 육적으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 육신이 자기 영과 함께 하나님의 것이 되고 주님의 것이 되어 살면, 왜 육신이 경제를 펴고 먹고 입고 마시는 데 고통을 주겠습니까? 자기가 주 뜻대로 살지 못할 때, 잘못된 길로 갈 때는 반드시 자기가 자기를 관리하여 브레이크를 밟으라는 것입니다.

섭리사 사람들은 흔히 육도, 마음도, 영도 주님의 신부인데, 세상에서

시간을 쓰면 마치 큰 죄를 짓는 것같이 생각합니다. 또 자기를 관리하기 위해, 경제를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인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시간을 쓰면 주님을 떠나 큰 죄를 짓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기를 온전히 주님의 것으로 만들어 살면, 자기가 쓰는 시간도 다 주님 안에서의 시간입니다. 시간 낭비가 아니고, 세상 시간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생각의 중심과 행실이 잘못됐을 때는 교회 안에서, 섭리사 안에서 시간을 써도 잘못된 것입니다. 고로 그때는 자기가 말씀을 듣고 자기 관리를 해야 됩니다. 자기의 세밀한 것은 관리자도 모릅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 제일 잘 느끼고 압니다.

(*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영상4> 첫째, 자기는 자기가 제일 잘 아니 말씀을 중심으로 자기가 자기를 관리하면 됩니다.

둘째, 자기가 모르는 것이 있으면 교역자나 관리자에게 자기 문제를 물어보고 관리받기 바랍니다.

셋째, 만일 교역자나 관리자에게 코치를 받았는데, 그 관리법이 잘 안 맞으면 다른 지도자에게 자기 문제를 내놓고 다시 관리의 코치를 받아 보기 바랍니다.

넷째, 그래도 안 되면 전문 관리자에게 관리를 받아야 합니다.

다섯째, 그래도 안 되면 선생에게 문제를 정확히 써서 보내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생이 주님과 같이 의논해서 관리해 줄 수 있습니다.

여섯째, 관리에는 기도가 필요하니 자기를 위해 주님께 깊이 기도하여 주님의 관리를 받아야 될 것도 있습니다.



<영상4> 설교 내용에 맞춰 해당 영상 제작 / 설교 내용 자막 처리

자기가 자기를 잘못 관리하면 자기 인생이 잘못되니 온전한 인생 관리법을 받고 행해야 됩니다. 시험문제의 답을 잘 쓰려면 먼저 문제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자기를 관리하기 전에 먼저 자기 문제를 정확히 파악해야 제대로 실력껏 자기를 관리하게 됩니다. 생명을 관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다 차원 높은 관리를 하려면 관리 전문가의 방법과 주님의 방법대로 해야 됩니다. 자기 차원의 관리는 자기 주관권을 못 벗어납니다. 항상 배우고 알아서 자기 실력껏 수준을 높여야 됩니다. 관리의 수준을 높이려면 오직 주님의 생각과 차원으로 관리해야 됩니다. 그래야 때를 따라 온전하고 합당하게 성장하게 됩니다.

사탄의 유혹을 받지 않도록 사탄의 괴이한 술법을 알고 기도하며 철저히 관리해야 됩니다. 주님이 성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계시자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셨으니, 늘 기도하여 사탄을 물리쳐야 됩니다. 하루에 7번 정도는 사탄이 유혹하지 못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사탄은 우리 방에 몰래 들어와 있는 뱀과 같습니다. 그리고 늘 우리의 영을 괴롭게 합니다. 고로 사탄이 있는지, 없는지 늘 조사하며 자기를 관리해야 됩니다.

또한 사탄과 함께 역사하는 인간 사탄들을 조심하며 관리해야 됩니다. 악의 세계로 꺾고 유혹하는 자들에게 절대 속지 말고 뽀를 받지 않도록 자기를 관리해야 됩니다.

섭리 안에서도 바깥에서도 자기 욕심과 자기 유익을 위해 행하는 자들에게 속지 말고, 두루두루 파악하고 교육받은 것을 생각하면서 절대적으로 철저히 자기를 관리해야 됩니다. 사람을 겉으로만 보고 대하면서 따르지 말고, 속도 보고, 앞뒤 다 보고, 신앙도 보고, 그의 행실도 보고 온전하면 따르고 주님의 뜻이면 행해야 됩니다.

자기 관리를 할 때는 자기 마음, 생각, 정신을 철저히 관리해야 됩니다. 또한 자기 행실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관리하고, 기도로 관리하고, 사명을 맡았으면 사명에 대해 연구하고 노력하며 책임을 다하는 관리가 필요합니다.

흔히 지도자들은 다른 사람들은 관리하는데 자기 관리에는 신경을 못 씁니다. 따르는 자들이나 보는 자들은 눈으로 보고 말로 들으며 지도자를 판단합니다. 고로 자기 관리가 안 되는 지도자는 바로 알아봅니다. 지도자가 자기 관리를 못 하면 따르는 자들이 그것을 보고 그 지도자의 관리를 안 받으려고 합니다.

순리적 관리, 점진적 관리, 돕고 이끌어 주면서 관리, 가르쳐 알게 하면서 관리, 대신 희생해 주면서 관리, 먹여 주고 입혀 주면서 관리해야 됩니다.

관리할 때는 먼저 관리할 자를 세밀히 파악해야 됩니다. 그리고 밀착 관리를 해 줘야 됩니다. 첫째, 영적으로 신령하게 관리해야 되고 둘째, 목적 있는 관리를 해야 되고 셋째, 어느 정도 크면 자기 실력대로 행하도록 코치해 주는 관리를 해야 됩니다. 자기 구상 관리가 아니고, 주님 맘에 맞는 주님 구상 관리를 해야 주님이 맘에 들어 쓰게 됩니다.

관리하지 않으면 존재하지 못하고 죽습니다. 관리는 생명입니다. 자기 마음, 정신, 생각이 헛된 데로 흘러가지 않게 마치 어린아이를 관리하듯 매일 매시간 철저히 관리해야 됩니다. 관리자는 눈을 떼고 마음을 떼면 못 보니 관리를 못 합니다.

(* 가장 중요한 관리법에 대해서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영상5> 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으니, 신앙을 굳건하게 만들어 전쟁터에 내보내는 군인같이 무장을 시켜 주는 관리를 해야 됩니다. 뱀이 어린아이를 못 물게 어린아이에게 갑옷을 입히고 옷에 약을 뿌려 아예 뱀이 근처에도 오지 못하게 방지하듯 관리해야 됩니다.

<영상5> (설교 내용에 맞춰 해당 영상 제작 / 설교 내용 자막 처리)
전쟁터의 군인을 무장시키는 모습 (총과 칼을 갖춘 군인들)
갑옷을 입고, 약을 뿌린 옷을 입은 어린아이 (뱀이 접근을 못 한다.)

관리하지 않으면 그동안 관리했던 것이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립니다.
자신이 밖에 나가나 집에 있으나 옷을 입듯이, 어느 곳에 있으나 안전사고에 신경 쓰듯이, 관리도 늘 관심 갖고 신경 쓰는 관리를 해야 됩니다.

운전하는 자는 자기 차도 관리하고, 상대 차도 관리하고, 앞뒤 좌우 거리도 관리해야 됩니다. 또 자기 차를 정비하며 관리하는 등 관리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와 같이 자기 인생 생활의 관리도 관리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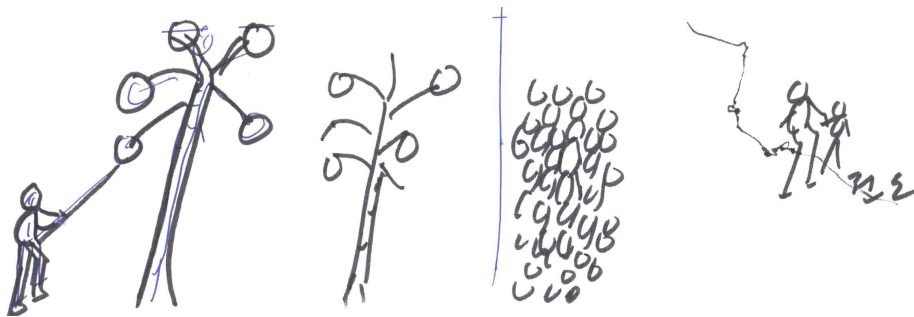
먼저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전도를 해야, 자기 생명을 관리하듯이 전도된 생명도 관리하여 전도와 관리에 성공하게 됩니다. 전도하지 않으면 새 역사의 불이 꺼지고, 관리하지 않으면 생명이 존재하지 못합니다.

(* 화면을 보겠습니다.) <영상6> ① 이 말씀을 쓰는 날 새벽에 기도할 때 주님께 물었습니다. “천국에는 수천억의 천인들이 있는데, 왜 하나님은 130억 년 이상의 시간을 들이면서 우주와 지구를 창조하여 그 터전 위에 인생들을 창조하셨습니까?” 했습니다. <자막1>

②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새로운 역사를 하려고 창조한 것이다. 천국의 상대 세계인 지구에 존재하고 있는 자들과 함께 새롭게 사랑과 이상의 대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다.” 하셨습니다. <자막2>

③ 또 물었습니다. “지구 세상의 그 많은 자들이 생각보다 전도도 안 되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 자들도 적고, 천국에 가는 자들도 별로 없는데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렇게 계속 지구 세상의 인간들에게 역사를 하십니까?” 물었습니다. <자막3>

④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농부가 농사를 지었으나 자기가 기대한 만큼 거두지 못하고, 과수원지기가 과일나무를 가꾸었으나 자기가 기대한 만큼 과일이 안 열었어도 그나마 안 하면 농부는 거둘 것이 전혀 없게 되고, 과수원지기는 과수원을 모두 버리게 된다. 이 세상의 구원역사도 그러하다. 기대한 만큼 생각보다 안 돼도 정한 때까지는 역사해야 된다. 고로 생각보다 전도가 안 돼도 전도하여라. 가령 과수원지기가 한 나무에서 300개의 과일을 기대했는데 30개밖에 못 따더라도 부지런히 과일나무를 가꾸고 퇴비하며 과일 농사를 지어야 한다. 30개의 과일이라도 만족해야 된다. 그것밖에 안 열렸다고 과일 농사를 안 지으면 과수원지기는 존재하지 못하게 된다. 올해도 생각보다 전도가 잘되든지, 생각보다 전도가 잘 안 되든지 전도하여라!” 하셨습니다. <자막4>



⑤ 그리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여자는 시집가서 1년 만에 그 어려운 아이도 낳아 기르는데, 신앙생활 한 지 2년, 3년, 5년이 되었어도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하고 혈혈단신의 몸으로 교회에 다니느냐.” 하셨습니다. (* 혈혈단신 : 의지할 곳이 없어 외로운 홀몸) <자막5>



<영상6>

① 선생님의 기도

<자막1> 설교 내용 자막으로 처리

- ② 천국의 천인들 보여 주고, 우주와 지구 보여 주고,
지구 세상의 교회들과 구원하는 모습 보여 주기.

<자막2> 설교 내용 자막으로 처리

- ③ 한쪽 화면에는 선생님의 기도, 한쪽 화면에는 지옥에 가는 영혼
많고, 천국에 가는 영혼 적은 모습 도표

<자막3> 설교 내용 자막으로 처리

- ④ 초안

<자막4> 설교 내용 자막으로 처리

- ⑤ 초안

<자막5> 설교 내용 자막으로 처리

주님을 사랑해야 영적 생명을 탄생시킵니다. 믿습니까? 여자가 결혼
하여 남자와 육체적 사랑을 하면 생명을 탄생시킵니다. 우리는 주님과 정
신적 사랑을 하면 전도하여 영적 생명을 탄생시킵니다.

지금까지 관리와 전도에 대해서 1차 말씀을 했습니다. 관리하지 않으면
과일 썩듯이 썩습니다. 관리하지 않으면 잃어버리고 뺏기게 됩니다.
관리해야 자기 것이 됩니다. 관리해야 개발되고 빛이 납니다. 또한 안 되
더라도 전도해야 그나마 거둘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관리와 전도에 대한 말씀을 들은 터전 위에 주님께서 핵심
적으로 관리와 전도에 대하여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관리의 왕
중의 왕이시고 구세주이십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금년도에는 자
기 생명을 철저히 관리하여 자기 생명을 사망에 빼앗기지 않게 하기를 바
랍니다. 그리고 많은 생명들을 생명의 세계로 들어오게 하기를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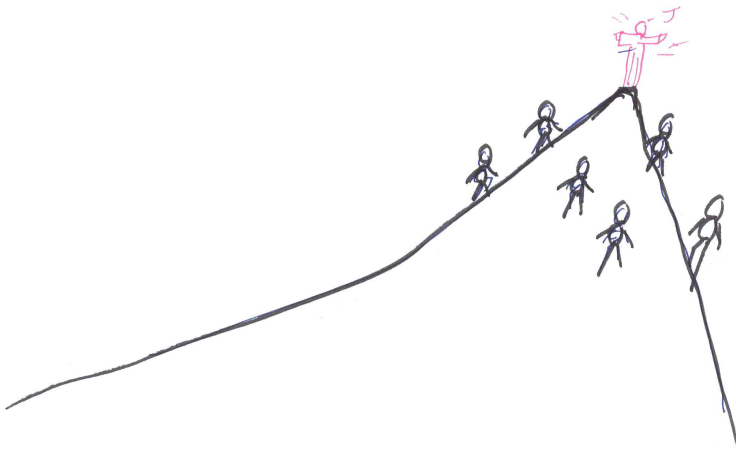
<영상7> 예수님 출현 - “올해는 나와 관리와 전도의 해다.”

<예수님 말씀>

나 예수가 올해는 ‘관리와 전도의 해’로 정하고 이에 집중하도록 하였다. 고로 관리와 전도에 대해서 말하니, 왜 이같이 정했는지 깨닫기 바란다.

(* 화면을 보면서 주님의 말씀을 들겠습니다.) <영상8> 자기를 관리해야 영과 육이 자꾸 변화되고, 신앙의 목적인 완전한 육과 영으로 변화되어 나의 신부로서 나의 주관권에 완전히 들어오게 된다. (관리함으로 영과 육이 주님의 신부로 변화되어, 주님 주관권에 완전히 들어간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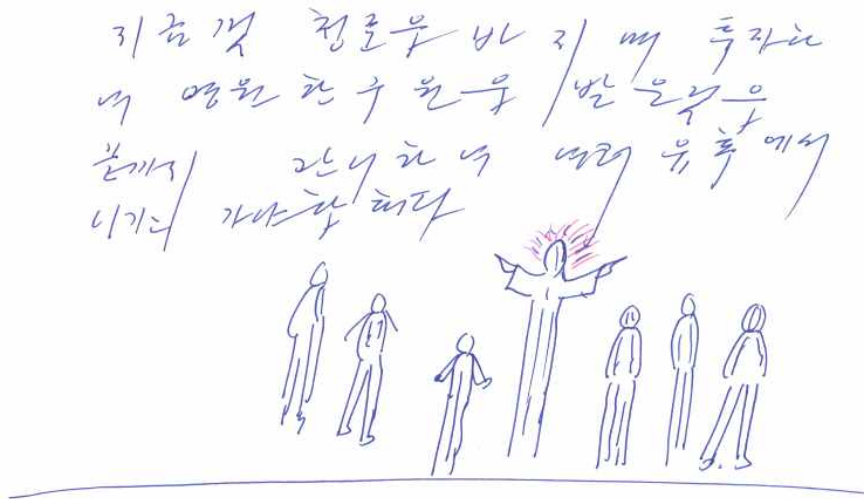
올해는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고 사탄과 악한 자들과 유혹자들을 물리치고 70, 80, 90% 선을 넘어 100% 단계에 오르자. 그리하여 나의 온전한 세계로 변화된 영과 육으로 만들자. 아직 미완성된 자들은 꼭 자기 영과 육을 완성하도록 올해는 자기를 관리하는 해로 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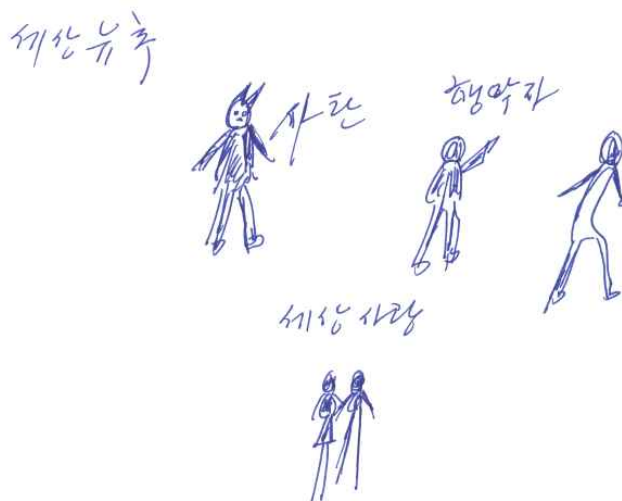
<영상8> 설교 내용 모두 자막으로 처리

사탄도, 악한 자도 일절 너희를 찌지 않고 해하지 않도록 늘 자기를 관리하여라. 지금까지 애쓰고 수고하며 나의 섭리의 주관권 안에서 살다가 사탄에게나, 섭리를 불신하고 악평하는 자들에게나 그 귀한 생명을 빼기지 말아라. 너희는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구원받은 영과 육이다.

(* 다시 화면을 보겠습니다.) <영상9> 너희가 지금껏 청춘을 바치고 투자하고 수고한 것을 시간적인 값으로만 쳐도 얼마나 크냐. 더구나 영혼을 구원해 놓았으니 그 값이 엄청나다. 끝까지 관리하여 여러 유혹을 이기고 가야 할 때다.



올해는 특히 너희 자신을 더욱더 관리하여 그동안 너희 자신이 지금껏 수고하여 얻은 것들과 그 귀한 구원을 마귀에게도, 불신자들에게도, 악평하고 헐뜯는 자들에게도, 말로 꾀는 자들에게도 뺏기지 말아라. 또 너희 자신을 철저히 관리하여 나 에수를 떠난 사랑과 명예와 권세와 물질에 너희를 뺏기지 말아라.



<영상9> 설교 내용 모두 자막으로 처리

너희는 나 예수의 신부다. 고로 내가 너희를 말씀으로 철저히 관리할 테니 오직 나의 말을 듣고 행하여라. 나는 말씀으로 관리할 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항상 성령과 함께 너희를 관리한다. 너희는 어디에 있든지 항상 나 예수에게 관리해 달라고 하여라. 내가 깨닫게 해 주고 함께할 테니 내 말을 듣고 너희가 결심하고 행하여라.

나 예수는 과거에도 섭리인들을 관리하고 지켜 왔다. 올해는 마지막 정상을 넘어가는 관리의 해다. 나 예수가 하는 일을 막거나 악평하거나 불신하거나 거스르거나 꺾는 사탄과 행악자들을 멸하리라. 너희도 나와 같이 모으고 헤치기 바란다. 못 했다고 핑계 대지 말고, 노력하고 행하기 바란다. 자기를 위한 관리, 자기를 위한 투자이니 아끼지 말아야 된다.

(* 중요한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들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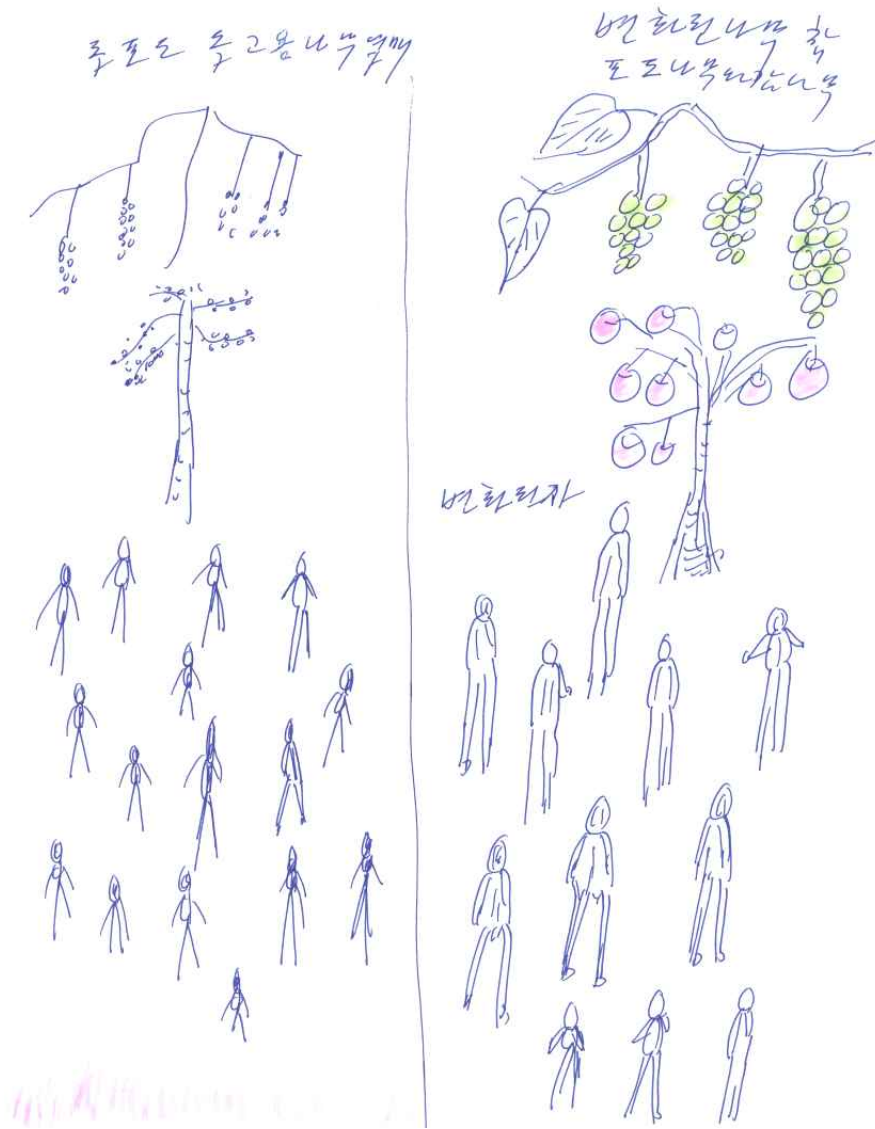
<영상10> ① 나의 말을 귀로 듣고 마음에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이 너희가 해야 할 관리다. 그래야 성장하고 변화된다. <자막1>

② 신앙은 변화의 역사다. 누구든지 마음도, 생각도, 육신의 행위도, 영도 하늘에 속한 형상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그 영은 하늘나라에 들어올 수가 없다. <자막2>

③ 너희가 태 속에서 날마다 변화되지 않았으면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서 존재하지 못했다. <자막3>

④ 이와 같이 ‘지구’ 라는 태에서 사는 너희가 하늘에 속한 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너희 영을 날마다 하늘에 속한 영으로 변화시키지 않으면 그 영은 천국에 와서 살 수가 없다. <자막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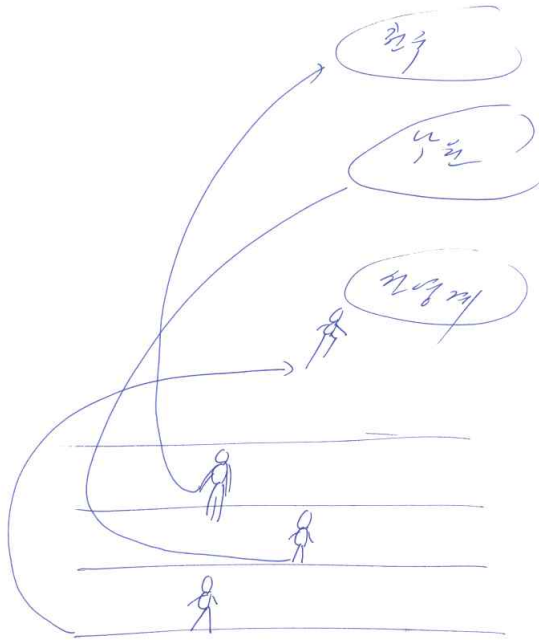
⑤ 육신이 세상에서 나의 생명의 말씀을 행하지 않음으로 변화되지 못하면, 그 영도 변화되지 못하여 세상에 속한 영으로 끝난다. 이러한 영은 돌포도와 같고 돌감과 같아서 세상 어둠 쪽 악영계나, 음부, 무저갱이나, 지옥에 처하게 된다. 반면 육신이 세상에서 나의 생명의 말씀을 행함으로 변화되면, 그 영도 변화되어 하늘에 속한 영이 된다. 이러한 영은 참포도와 같고 참감과 같아서 낙원이나 천국에 거하게 된다. <자막5>



⑥ 너희가 세상의 모든 것을 보아라. 철을 그대로 놔두면 철 세계에서 끝난다. 그러나 철을 변화시켜 차를 만들면 차 세계에서 존재한다. 흙을 그냥 놔두면 흙 세계에서 끝난다. 그러나 흙을 변화시켜 그릇을 만들면 그릇 세계에서 쓰인다. 나무도 산에 그대로 놔두면 나무로 존재하고 끝난다. 그러나 나무를 베어다 집을 지으면 다른 차원의 세계에서 존재하게 된다. <자막6>

⑦ 이와 같이 ‘변화의 역사’ 다. 한 알의 곡식도 그대로 놔두면 10년, 100년 동안 하나로 존재하고 끝난다. 그러나 그것을 땅에 뿌려 변화시키고, 그와 같이 10년을 한다면 대농사를 짓게 된다. <자막7>

⑧ 인간 세계도 어떤 면으로 변화시키느냐에 따라 운명이 좌우된다. 자기 삶이 자기를 변화시킨다. 자기 삶 그대로 두면 그 영이 변화되지 못하여 악영계, 무저갱, 지옥으로 가게 된다. 그러나 내 아버지와 나 예수를 믿고 사랑하며 나의 말씀대로 행함으로 육도 영도 변화시키면 그 행위의 차원대로 변화된 대로 선영계, 낙원, 천국으로 가게 된다. <자막8>



<영상10>

① 주님 말씀 귀로 듣고, 마음에 받아들이고, 행하는 모습

<밑에 자막> 관리 = 성장, 변화

<자막1> 설교 내용 자막으로 처리

② ‘신앙은 변화의 역사다’ - 한 화면에 크게 자막으로만 나간다.

그리고 마음(정신, 생각), 육의 행실, 영이 변화되는 모습

<자막2> 설교 내용 자막으로 처리

③ 태 안의 아이가 점점 성장하고 생명체로 변화되어 태어나는 모습
(실제 영상)

<자막3> 설교 내용 자막으로 처리

④ 육신 → 영이 1단계, 2단계, 3단계로 점점 변화되는 모습
시대 말씀

(* 영이 변화되는 단계별로 변화되는 모습이 나올 때

그 위에 태 속의 아이가 점점 변화되는 모습 같이 보여 주기)

<자막4> 설교 내용 자막으로 처리

⑤ 초안

<자막5> 설교 내용 자막으로 처리

⑥ 한 화면에 비교 모습 (삼화 말고 실제 모습 사용)

- 철 그대로의 모습 Ⅱ 칼, 비행기, 자전거, 자동차, 비행기
- 흙 그대로의 모습 Ⅱ 각종 그릇
- 나무 그대로의 모습 Ⅱ 집

<자막6> 설교 내용 자막으로 처리

⑦ ‘이와 같이 변화의 역사다’ - 한 화면에 크게 자막으로만 나간다.

곡식 그대로의 모습 Ⅱ 그것으로 씨를 뿌려 대농사를 짓는 모습

<자막7> 설교 내용 자막으로 처리

- ##### ⑧ - 변화되지 않고 자기 삶 그대로 있는 자를 그리고, 화살표로 단계를 표시해서 악영계, 음부·무저갱, 지옥으로 가는 모습
- 변화된 자는 초안 그대로 그리면 된다.

<자막8> 설교 내용 자막으로 처리

고로 철저히 자기 관리를 해야 된다. 더 좋은 관리를 받고 자기를 관리하여라. 나 예수가 시대 사명자를 통해 너희에게 말씀을 주어 행하라고 하며 관리한다. 관리를 잘할수록 차원이 높아지고, 너희 육의 마음도, 육의 행실도, 영도 변화된다. 나는 너희가 변화된 모습에 따라 대해 준다.

변화는 희망이다. 변화는 우리의 목적이다. 변화의 운전대는 관리다. 생명을 전도하면, 전도된 생명이 사망권에서 생명권으로 변화된다. 이때 전도한 자신도 그에 따라 더 변화된다. 전도는 형제를 구원해 주는 관리다. 전도하면 전도된 자도, 자기도 생명의 변화가 일어난다.

어떤 자는 말씀을 들어도 새롭게 행하는 것이 없으니 자기 영을 관리하지 못하여 그 영이 늘 똑같은 차원에서 살고 있다. ‘관리’는 보다 못한 것을 때려 부수고, 보다 좋은 것으로 만드는 세제다.

누가 관리해 주기만을 바라지 말고, 자기가 중심을 맞추어 개성대로 관리해야 된다. 자기가 자기를 관리하면 항상 자기 관리를 할 수 있다. 타인이 자기를 관리하면 시간적 제재를 받게 된다. 자나깨나 주야장천 스스로 조심함으로 자기를 관리해야 된다.

건강관리도 마찬가지다. 자기가 자기 몸에 신경을 쓰고 살피면 진찰기보다 더 세밀하게 자기 건강 상태를 느낀다. 이와 같이 자기 육신도 영도 늘 세밀하게 살피고 신경 쓰면서 느낌으로 진찰하며 관리해야 된다.

관리는 연구할수록 더 관리에 대해 알게 되고, 관리에 유능한 자가 된다. 관리에 대해 연구하고 노력하여 관리의 기술을 가져라. 그리고 기도하여 관리할 것은 기도하며 관리다. 행하여 관리할 것은 행하면서 관리다. 여러 가지로 자기를 관리하는 것이다.

자기 관리와 어린 생명 관리다. 무엇보다 첫째, 자기 신앙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 그리고 둘째, 형제를 관리해야 된다.

관리할 때는 오직 나 예수의 뜻에 맞추어 내 맘에 맞게 관리해야 구원이 합당하게 이루어진다.

(* 화면을 보겠습니다.) <영상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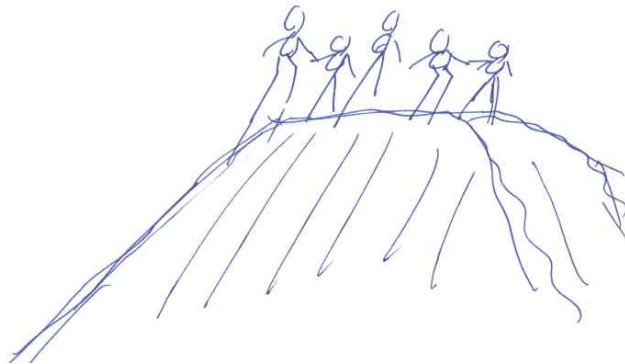
① 올해는 철저한 ‘자기 관리’ 다. ‘형제들 관리’ 다.

② 홍수가 나서 산이 무너지기 전에 피하는 것이 관리다. ‘설마 산이 무너지랴? 설마 산이 무너져 내 집을 덮치랴?’ 하는 자는 관리를 못하는 자다. 홍수가 날 때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산사태가 일어난다.

<자막2>

③ 홍수가 나기 전에 방지하듯이, 환난이 일어나기 전에 관리다. 사탄이 피어 간 후에 관리가 아니다. 악한 자들이 피어 간 후에 관리가 아니다. 사탄과 악한 자들이 피어 가기 전에 자기도 관리하고 형제도 관리

하여 사탄과 악한 자들에게 뺏기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다. <자막3>



<영상11>

① 자기 관리 || 형제 관리

<자막1> 설교 내용 자막으로 처리

② 홍수가 나서 물이 범람하고 집과 모든 것이 떠내려가는 모습
홍수로 인하여 산사태가 나는 모습

<자막2> 설교 내용 자막으로 처리

③ 사탄이 꾀어 간 후의 모습 / 사탄이 꾀어 가기 전 모습 (초안)

<자막3> 설교 내용 자막으로 처리

관리는 완전하게 해야 된다. 안일하거나 태만하면 관리하지 못한다.
완전한 세계는 다른 세계다. 천국은 완전한 세계다. 완전하게 관리하는
자는 천국 차원에 해당되는 관리를 하는 자다.

(* 다시 화면을 보겠습니다.) <영상12> ① 홍수 피해를 당하지 않게
하려면, 지난날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홍수 피해를 생각하며 아예 집을 지
을 때 홍수가 나지 않는 위치에 지어야 한다. 이와 같이 섭리사도 지난날
과거에 사탄들과 사람들로부터 환난 당했던 것을 거울로 삼고, 생명을 관
리할 때 아예 거기를 피해서 관리해야 된다. 항상 지난날의 환난이 동시
성으로 오기 때문이다. <자막1>

② 아예 바닷가를 떠나고, 강가를 떠나고, 모래사장 위를 떠나서 집을 짓는 자는 전혀 그로 인한 피해를 안 본다. 아예 바다에 수영하러 안 가면 100% 물에 빠져 죽지 않는다. 바다로 수영하러 간 자들 안에서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다. 전쟁터에서 100만 명이 총을 쏘도 총알이 날아 오지 못하는 곳으로 멀리 피해 있으면 평생 누가 총을 쏘도 안 죽는다.

<자막2>

<영상12>

① 해당 영상

<자막1> 설교 내용 자막으로 처리

- | | |
|--------------------|-----------------|
| ② - 바닷가, 강가에 집을 지어 | 아예 바닷가와 강가를 벗어나 |
| 집이 떠내려가고 | 안전한 곳에 집을 짓고 |
| 사람들이 떠내려가는 모습 | 사는 자들의 모습 |
| - 바다로 수영하러 간 자들 | 아예 바다를 벗어나 |
| 바다에 빠져 죽는 모습 | 피해를 당하지 않는 자들 |
| - 전쟁터에서 적 속에 들어가 | 적들에게서 멀리 피하여 |
| 총탄 맞고 죽는 자 | 총을 쏘도 안전한 모습 |

<자막2> 설교 내용 자막으로 처리

이와 같이 완전한 자기 관리를 하여라. 관리법을 말하였으니 행하기 바란다. 자기를 완전히 관리하여 자기 생명을 더욱 온전히 전도하여라. 자기를 온전하게 만들어야 다른 생명을 전도했을 때 그도 온전하게 해 줄 수 있다.

(* 매듭짓는 말씀, 화면을 보면서 들겠습니다.)

<영상13> ① 동물들이 자기 새끼들의 생명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을 보아라. 제 새끼를 품에 넣고 관리한다. 어느 때, 어미가 죽게 생겼을 때는 새끼를 숲 속에 숨겨 놓고 도망쳤다가 야수가 간 후에 다시 와서 새끼

를 키워 뛰고 달리게 만들어 악한 야수의 먹잇감에서 벗어나게 한다. <자막1>

② 이와 같이 생명들이 나 예수의 품을 벗어나지 않도록 확실한 말씀을 넣어 주어 저마다 확신을 갖게 해 주고 신념과 이념을 가지게 해야 된다. 악인들의 헛된 이론에 넘어가지 않도록 늘 말씀을 확실히 심어 주어야 한다. <자막2>

③ 또 행악자들의 악한 말은 아예 접하지도 말고, 그들은 아예 만나지도 말게 하여라. 왜냐하면 사람은 선한 것보다 악한 것에 더 귀를 기울이고, 좋은 말보다 비난의 말과 남을 헐뜯는 말 듣기를 더 좋아하여 귀를 기울이고 듣기 때문이다. 고로 아예 악한 말은 접하지도 말고, 악평자들은 만나지도 말라는 것이다. <자막3>

④ 선과 악을 무엇으로 구분하겠느냐. 의와 죄를 무엇으로 정의하겠느냐. 전능하신 하나님과 나 예수의 말씀을 주었을 때 순종하지 않으면 죄와 악으로 정한다. 내 아버지와 나 예수가 한 말이 의의 표준이다. 그 말씀은 시대 사명자를 통해 전한다. 또 각자의 양심을 통해 전한다. 이로써 선악을 구분하고, 그 행위에 따라 축복도 주고 심판도 하는 것이다. <자막4>

<영상13>

① 동물의 세계

<자막1> 설교 내용 자막으로 처리

② 해당 영상

<자막2> 설교 내용 자막으로 처리

③ 해당 영상

<자막3> 설교 내용 자막으로 처리

④ 아래 도표에다가 하나님 추가로 넣고, 그 밑에 화살표를 그려서 시대 사명자를 통해서 전하는 말씀임을 표시한다.



<자막4> 설교 내용 자막으로 처리

오늘부터 내가 한 말을 지키기 바란다. 내가 한 말을 지키는 것이 너희 자신을 늘 관리하는 것이다. 관리는 코치요, 멘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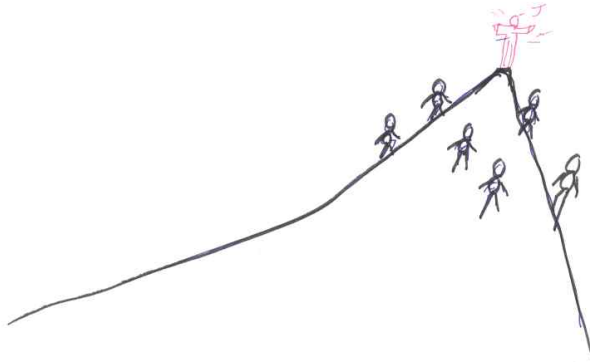
전능자 나 예수가 인생들을 볼 때, 마치 다 큰 사람이 어린아이를 보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인생들은 전지전능한 나 예수가 관리해야 되고, 너희는 내게 맡기고 행해야 된다.

너희를 구원하여 하늘나라에 오기까지 늘 관리다. 너희는 내가 명한 것을 행하면 된다. 너희 영혼을 구원하였으니 한눈팔지 말고 끝까지 관리 하여라. 그래야 영원한 소망을 이루게 된다.

너희 육신도 마음도 영도 관리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다. 샬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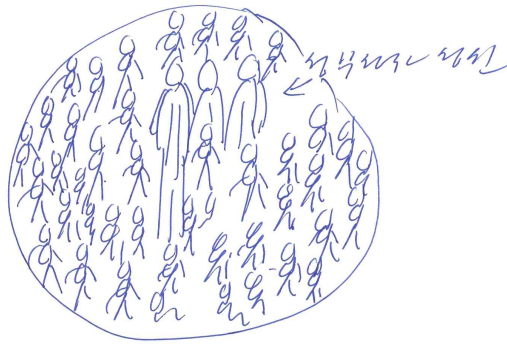
<영상14>

① 자기 관리(초안) / 생명 관리(해당영상)



<자막과 말씀> 올해는 첫째,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여 100% 선에 오르고, 둘째, 완성된 자로서 생명을 전도하고 관리하여 구원하는 해다.

②



<자막과 말씀> 나 예수의 품에서 벗어나지 말아라. 나 예수의 주관권인 섭리사를 벗어나지 말아라. 전능자 하나님과 나 예수가 환난과 시험의 때에 너희를 보호할 것이다.

③ 예수님 인사 (밑에 '주와 관리, 전도' 선생님 글씨)

<자막과 말씀> 너희 육신과 마음과 영을 관리하는 주 예수다.

<축 도>

지금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구원해 놓으시고 어떻게 살라고 관리와 전도의 말씀을 주시며 가르쳐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뜨거운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섭리사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기를 성부, 성자, 성령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